

**현대예술과 문화의 죽음**

-한스 로크머저 저, 김유리 옮김, IVP, 1993-

신명균

이 책이 우리말로 소개된 지도 8년이 되고 있는 터에 이제 서평을 쓴다는 것에 새삼스런 평을 담아내지 못하면 다소 진부해지리라는 부담이 있다. 이 책이 미국 IVP에서 처음 출간된 것은 78년도(초판은 70년)이고 내가 이 원서를 처음 접한 것은 선교사로 와 있던 분을 통해 80년 무렵이었다. 당시 나는 기독교 예술론과 미학에 심취돼 있었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논의를 개진한 책이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구해서 읽었다. 그때 다행히도 미국에 유학하고 계셨던 선배 목사님을 통해 소개받았던 책 가운데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 Wolterstorff)가 쓴 *Act in Action - Toward a Christian Aesthetic*를 비롯해 칼빈 지어벨트(Calvin Seerveld), 밥 하우즈바르트(Bob Goudzwaard), 프랜시스 쉐퍼(F. Schaeffer), 진 에드워드 비쓰(Gene E. Veith) 등의 저서들이 있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90년도에 이르러 한국 기독교에서도 소위 문화가 이슈화되었고 이런 분들의 책들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대충 저작물의 출판으로만 봐도 우리가 대략 20-30년 늦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그 이상의 간격이 있다고 본다. 실례로 서구에서 출간된 *Christian Art in Asia*(W. A. Dyeness, 1979)나 *Asian Arts and Christian Hope*(Kathleen D. Nicholls, 1983)와 같은 아시아의 예술관련 책자에서도 한국 기독교의 문화예술은 제외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은 일반적으로 칼빈의 사상인 개혁주의가 예술과 문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되고 있는 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교회음악 분야에서 칼빈은 이를 철저히 배격한 것처럼 생각하면서도 세계관과 기독교 문화를 논할 때는 화란의 개혁주의 사상에 의해 가장 잘 정립된 것으로 보는 혼란이다. 하지만 칼빈의 사상은 신학적 체계라기보다는 성경적 원리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칼빈 시대는 본질을 지키기 위한 선언적인 의미에서 종교 개혁 이전의 구교 전통과 과감하게 단절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가 말하지 않거나 무시했던 것은 성경이 언급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기도 한 것이었다. 하지만 칼빈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상 진보(우리의 이데올로기적 개념과는 다르다)적이어서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결과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시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현대예술과 문화의 죽음』은 이런 화란 개혁주의의 문화이론에 잘 훈련된 저자의 통찰력이 반영된 훌륭한 저서이다. 화란 자유대학의 교수인 저자 한스 로크마커는 이미 우리에게 80년 중반에 번역되어 소개된 바 있는 *Art Needs No Justification*를 통해 알려져 있다. 여기서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여 일일이 평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저자의 기본 의도와 이 책의 의의 부분만을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저자는 현대문화의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한 역사적이고 성경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프란시스 쉐퍼가 『이성으로부터의 도피』에서 시도한 것보다 훨씬 심도가 있다. 예를 들어 그는 현대 문명의 병폐가 그저 단순히 '죄의 문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가 문제가 되는 사상의 뿌리까지 파헤쳐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개관만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건과 작품의 경우에서 시도되었던 작가의 의도된 경향으로부터 문제를 제기해 내고 있다. 그러기 위해 그가 제시하는 60여 장의 그림들은 이제껏 깨닫지 못했던, 죽음을 지향하는 이 시대 문화의 경향성을 간파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이 책의 가장 빛나는 부분은 끝의 두 챕터일 것 같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제시하기 위해 우리가 항상 품게 되는 질문들에 대해 먼저 시원하게 대답해주고 있다. 신앙과 이성의 문제, 아름다움과 예술의 문제,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 예술윤리의 기준, 예술가로서의 소명과 책임 등등.

사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기로 전환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90년대에 경험한 문화와 예술 논의는 원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두 책은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나, 로크마커의 책은 서구문화는 기독교 문화라는 시공간적 구조에서 나이브한 생각에 빠져서 현대문화와 예술의 경향의 맥을 놓치기 쉬운 점을 보완해 준 차원에서 급속히 근대화과 서구화를 통해 정체성을 상실한 우리에게 적격한 시각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 학자들이 쓴 앞의 글 속에서는 우리 사회와 문화의 토양에서 기독교 문화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정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본다. 지금 세계의 사상계는 전환 세기의 논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도 우리 문화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소모적 논쟁과 아울러 상식적인 문화이론의 소개만으로 제자리걸음하는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문화포럼의 장이 넓혀지길 기대해 본다.

---

신명균 / ACTS를 졸업하고 합동신학교 재학중 도미, 미국 칼빈신학교에서 수학한 후 현재 강의 및 신문 방송에서 문화평론가로 활동.